

전남 정원 페스티벌 2년 연속 완도서 열린다

완도군, 내년 대회도 유치 확정 올 대회 특색 있는 정원 호평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 준비”

완도군이 '2024년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유치를 성공했다.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완도군은 올해 '제 3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에 이어 2년 연속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다. 완도군은 처음 개최한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도만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됐으며, 바다와 숲 등을 주제로 한 50여 개의 정원과 더불어 어린이 공원과 해변 버스킹, 체험 행사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전시 작품을 관내 요

소요소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겼다. 군은 당초 페스티벌 기간을 5월 한 달간으로 계획했으나 연장해 달라는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곧장 계획을 수립해 6개월 연장했다. 정원 페스티벌의 흥행과 지역민의 호응이 2024년도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군은 2024년에 열릴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연례 반복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참신한 주제와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 12월 사전 공모 등을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도민제전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돼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지역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에 우리 군에서 열릴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과 장보고수산물축제 등과 연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풍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이 '2024년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유치를 확정했다. 올해 열린 페스티벌 모습.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군정 정보 '땅끝해남소식'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해남 군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땅끝해남소식'이 제33회 2023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공공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후원해 매년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등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사보 관련 시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땅끝해남소식'은 2015년 특별상을 시작으로 2020년 최우수출판물 부문 최우수상, 2021년도 인쇄사보외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는 인쇄사보-공공부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매월 2만 5000부를 발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군민들의 사랑받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한 땅끝해남소식은 해마다 가독성을 높이고 읽을거리를 다변화하면서 매년 구독자가 급증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남군 60% 이상의 세대에서 구독하고 있을 만큼 군정과 군민들을 잇는 중요한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만의 특성을 잘 살린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 데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땅끝해남소식은 지난 1999년 9월1일 창간돼 해남군의 정책, 문화,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다양한 군정 시책과 함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와 문화 관광 소식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읍면 명예기자단 운영과 정책퀴즈 등 구독자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풍성한 소식을 매달 전달하고 있다. 땅끝해남소식은 해남군민 및 향우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월암리·사창리 '전남도 치매안심마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몽탄면 사창리 2곳이 최근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지방·우수 치매안심마을'에 뽑혔다. 월암리와 사창리는 무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월암마을은 지난 2019년, 사창리는 2020년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됐다. 마을 주민들은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꾸렸고, 주민 대상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들 마을은 치매 극복 선도기관·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치매 인식개선·홍보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김성철 무안군 건강증진과장은 “다양한 건강증진·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 주민 200여 명이 최근 백룡산 단풍나무 숲길에서 '기찬뿔길 가꾸기 군민운동'에 참가하며 원추리를 심고 숲길을 걸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백룡산 단풍 숲길 '기찬뿔길 가꾸기 군민운동'

200여명 환경 정화·시설 점검

영암군은 지난 25일 주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룡산 단풍나무 숲길에서 '기찬뿔길 가꾸기 군민운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기찬뿔길을 가꾸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영암군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기찬뿔길 가꾸기 군민운동은 지난 5월 15개 단

체가 참여하면서 시작했다. 월출산 기찬뿔길 구간을 나눠 환경 정화, 시설 안전 점검 등 자율참여형 길 가꾸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백룡산 걷고 싶은 단풍나무 숲길'은 전라도의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에서 최우수 숲길로 선정된 6.1km 평탄 구간이다. 참가자들은 덕진면에 집결해 간단한 몸풀기를 한 뒤 신북면으로 연결된 단풍나무 숲길을 걸

었다. 숲길을 걸으며 몸의 피로를 풀고 주변에 원추리 등 초화류를 심으며 숲길을 가꿨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이 숲길을 걸으며 가꾸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일상 속 걷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영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도로부지 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첫 승소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3건이 모두 승소의 승소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영광군은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이달 말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가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와 소송재기가 지속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 토지와 비슷한 사례의 사유지 현황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35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담당 부서는 대책 회의를 열어 유사 소송의 판례를 분석하고, 다른 시·군 사례 조사,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어르신 8525명에 점심...목포시 올 '사랑의 밥차' 성료

동절기 중단 내년 3월 재개

목포시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의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동절기 3개월(12월, 1월, 2월) 동안 중단됐다가 내년 3월 재개한다. 지난 28일 종료된 사랑의 밥차는 흑서기와 흑한기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 운영됐다. 올 한 해 동안 23회 운영돼 8525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자원봉사자 536개 단체, 1876명이 헌신적으로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 28개단체와 150명의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해 아·미용 봉사과 건강체조, 국악,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어르신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함께했다. 위탁을 맡은 강철수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은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건강운동과 오락을 통해 작은 행복을 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준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한분 한분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23회 운영해 8525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목포시 제공>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 7박 9일 미국 순회 마무리 500만달러 수출협약·특판전

김희수 군수를 단장으로 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최근 7박 9일간의 미국 순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진도군은 현지 대규모 한인시장인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남체인과 500만 달러 수출 협약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소재 메가마트 등 미국 현지 4개소에서 진도군 농수산물 판촉 특별전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미셀 박 스틸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국외연수 중이던 노관규 순천시장을 면담하고 진도군의 농수산물 수출 방안과 문화예술품을 소개하는 등 상호 협력을 도모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경제협력과 함께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과 첫 교류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게 진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도군 농수산물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순방은 진도군의 농수산물과 문화예술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미국 시장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두 기관 모두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신안군 모든 여객선 이용객 내년부터 무료 와이파이 제공

'1004섬' 신안군이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객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신안군은 군비 자체 예산 2000만원을 들여 신안해역을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에 무료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인터넷이 설치되는 운항 구간은 병풍도, 자은도, 비금도, 도초도 등 신안의 주요 관광지를 거친다. 이들 관광지를 거치는 9척의 월평균 이용객은 올해 기준 4만6692명에 달한다. 신안군은 내년 1월1일 무료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9척의 여객선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다. 신안해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모두 27척으로, 앞으로 무료 제공 여객선은 확대될 예정이다.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제공은 섬지역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이달 현재 신안군은 관광지,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60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